불황에 손님 뚝, 지원대책은 미흡…소상공인 '아우성'

코로나 대출금에 인건비 부담까지…지자체·정부 지원은 실효성 없어
광주 폐업률 12% 전국 최고 수준…폐업지원금 신청하니 "예산 소진"
고물가·고금리·불황 3중고 시름…한시적 아닌 내실있는 대책 절실

우울한 '소상공인의 날'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 '3중고'에 허덕이고 있어 지자체 등의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하루 앞둔 4일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힘들어졌는데 지자체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광주의 전체 기업(20만 5507개) 중 95%(19만 6021개)가 소상공인 업체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분류한다.

고물가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시 남구에서 채소가게를 하는 김모(63)씨는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와 광주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제로페이, 상생카드 연동 사업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걸 사용하려고 오는 사람조차 발길이 뚝 끊겼다"며 "이슈가 될 때만 일시 지원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주월동에서 7년째 팥죽집을 운영하는 배모(여·61)씨도 "코로나 때는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나 손님이 줄어 정부지원금을 받았지만, 최근엔 상황이 더 안좋은데도 도와줄 데가 없다"며 "종업원을 쓰는 곳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더욱 힘들어 하더라"고 혀를 찼다.

광주시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 소상공인들 이야기다.

한시적인 지원에 그치거나 막상 신청하려 해도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이다.

지속되는 경영난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무등시장 인근에서 30년째 횟집을 운영 중인 차영숙(여·60)씨는 "코로나 때 손님이 줄어 힘들긴 했지만 저리 대출이 나와 그걸로 버텼지만, 그 이후로 손님은 늘지 않았는데 빚만 남았다"며 "주변에서 올 봄부터 하나 둘 가게가 문을 닫더니 5~6개 상가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광주의 폐업률은 11.8%로, 인천(12.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폐업률이 높았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다 지난 7월 폐업한 박모(57)씨는 "폐업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폐업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자금이 소진됐다'며 2~3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피눈물을 삼키고 폐업을 했는데도 재기하려는 사람에게 도움마저 제 때 주지 않으니 답답할 따름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 지역의 '경기실사지수'(BSI)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경영 전망을 '악화 일로'로 보고있는 것이다.

BSI는 업체의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악화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뜻한다.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응답한 체감 BSI는 9월을 기준으로 2019년 76.5, 2020년 57.1, 2021년 55.8까지 떨어졌다. 코로나19가 끝나면서 2022년 63.3, 2023년 65.0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올해 9월 55.3으로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경영난이 지속되자 소상공인들의 지원도 수도권 편중현상이 생기고 있고, 적절한 지원도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전직 장려금 지원' 등 수요가 몰리는 사업들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최근 경기 침체와 맞물려 예산이 일찍 소진되는 사업들도 많다"며 "각 사업들이 전국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추진되다 보니, 지역 센터에서도 언제 예산이 소진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은 한시적이고 이자 상환·특례보증 등으로 일시적으로 현금을 풀어주는 데 그치고 있다.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 지원책을 '권역별 지원'으로 전환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 상인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각화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4일 오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더불어민주당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며 인도 위에 드러눕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장애인권리보장법 등 4대 법안 제정 촉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은 4일 광주시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4대 법안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권리보장법,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등이다.

장차연은 이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과 시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장애인은 무능한 존재,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뿌리 깊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의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한밤 중 여수 주택서 70대 여성 흉기 피살

오랜 지인 60대가 범행…경찰, 15시간 추적 끝 긴급 체포

한밤 중에 여수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용의자가 15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6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 10분께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서 B(여·7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 부위 등을 흉기로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씨의 남편과 딸이 잠을 자던 중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쓰러져 있는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범행 15시간여만인 4일 오후 2시께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도구는 도주 과정에서 버렸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원으로 일하는 A씨는 B씨 가족과 오랜 지인 사이로 B씨 가족이 열쇠를 두는 위치를 알고 있어 집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 무서워서 도주했다"

광주서 상가 충돌한 40대, 14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

광주시 서구에서 40대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14시간 여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인정했으나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위한 유효시간이 지났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다.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의 한 상가에서 A(43)씨가 SUV를 몰고 인도를 올라타 상가 외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상가 외벽과 인도 볼라드 2개 등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오후 2시께 광주서부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무서워서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고 이후 상당 시간이 소요돼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실이 입증되는대로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